

호남석화 여수공장 불법공사 말썽

원료관 구조물 설치…市 원상회복 명령

공사지속 요구 시의원 청사 소란 빈축



여수시가 불법 공사를 한 여수산단 대기업에 이례적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과정이 일고 있다.

특히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성 발언을 하고 사무실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여수시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이 신규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상 원료이송 관로 철 구조물(구조물 상단부분)을 1km 가량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공사를 강행하다 지난 20일 여수시에 적발됐다.

여수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구조물을 대해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적발에 앞서 수차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하도록 주문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불법 공사를 강행

한 이업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이미 받은 기존 파이프라인에 신규 파이프라인을 증설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금까지 산단 전체가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우리 회사만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의회 K의원은 지난 21일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친인척이 공사를 하고 있다며 공사를 계속할 수 없냐고 묻고 원상회복 명령 공문 발송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담당 공무원은 "시의원이 전화를 한 것 자체가 강압이 아니냐"며 맞서다 자신이 먼저 전화를 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수습이나서 상황이 종료됐다.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이 신규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상 원료이송 관로 철 구조물(구조물 상단부분)을 1km 가량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다 여수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삭하지 못해 도시계획과로 뛰쳐 들어갔다.

이내 K의원은 담당 공무원 책임으로 2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친인척이 공사를 하고 있다며 공사를 계속할 수 없냐고 묻고 원상회복 명령 공문 발송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담당 공무원은 "시의원이 전화를 한 것 자체가 강압이 아니냐"며 맞서다 자신이 먼저 전화를 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수습이나서 상황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K의원은 "시의원이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회사 노사가 복잡한 상황이나 공문 발송을 단지 며칠 연기해 주라고 정중히 요청했을 뿐 공사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내가 오죽하면 무릎까지 끊고 뭘 잘못했는지 물었겠냐"고 해명했다.

K의원은 이번 일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신상발언할 예정이다.

/글·사진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광양지역 멧돼지 피해 심각

올들어 피해신고 240건 수확철 맞아 급증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멧돼지 출현이 빈번하게 발생되며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지난 26일 광양시 진월면 밤밭에 멧돼지(80kg) 4마리가 출현해 밤에서 밤을 쟁여온 이후 72씨를 위협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이 권총 2발을 발사해 1마리를 사살한 뒤에야 나머지 멧돼지들이 도주한 정도로 대답해졌다. <사진>

9월 현재 광양시에 접수된 멧돼지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 신고만도 240여 건에 이르며 멧돼지 피해가 급증하자 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하반기 보상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광양시는 수확기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 애생동물 포함단' 25명을 구성해 지난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진기자 pyj4079@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 기계화

농어촌공 전남본부 제초기 시연회

그동안 인력에 의존해 왔던 농업용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이 기계화 도입으로 손쉬워지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지역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저수지 제방 경사면의 제초작업 제초기를 개발, 최근

답영 대전면에 위치한 대야 저수지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첫 선을 보인 제초기는 인력에 의해 한 제초비용의 4분의 1 수준으로, 작업량은 1일 31명분에 해당되는 1만 5579m²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인력 대비 1일 170만여원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은 대부분 인력에 의존해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소요됐다. 특히 기존 용배수로용 제초기의 경우 40도 각도 이상의 경사면에는 투입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김종원 전남지역본부장은 "앞



으로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을 모두 기계화한다는 계획 아래 제초기 보급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급·배수 관리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흙수피해 저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재단법인 목포수산물 유통센터' 만든다

목포시 해양수산 복합센터·서남권 유통센터 운영 조례안 상정

목포의 대표적 수산물 유통 시설인 해양수산 복합센터와 서남권 유통센터(옛 광동상가)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목포시는 이 두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수산물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단법인 목포수

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오는 29일 본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장은 목포시장이 맡고, 직원은 이사장인 시장이 임면토록 돼있다. 임원으로는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과 함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일반 경쟁을 해야 하지만 조례로 세부 근거를 만들어 특정 계층에 우선권

을 부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꼽지 않은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직관과 관계를 대상으로 최초 입점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재계야 때는 일반 경쟁으로 풀리기 때문에 황간에 나도는 특혜시비와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다.

한편 목포시가 15억 원을 투입해 복합에 건립한 해양수산복합센터는 수개월째 운영 주체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고, 옛 광동상가 부지에 7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1만여m² 규모로 지난해 5월 완공한 서남권 유통센터는 1년 넘도록 개점 휴업 상태에 놓여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코스모스 만개 섬진강마라톤대회

지난 25일 '제10회 국선 섬진강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마라토너들이 코스모스가 만개한 섬진강변을 달리고 있다. 45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유효봉(제지사)씨가 폴코스 남자부 우승(2시간 47분 5초), 신선애(부산시)씨가 폴코스 여자부 우승(3시간 34분 59초)을 차지했다.

해남군-인도 나가랜드 농업 교류 협약



해남군과 인도 나가랜드(Nagaland)주(州)가 상호 우호협력을 약속했다.

해남군은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

서 인도 나가랜드 주정부 관계자와 함께 상호협력관계를 체결, 해남군의 선진농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 북부에 위치한 나가랜드 주는

400만의 인구에 면적 1만 2000km²에

이른다. 이번 방문에는 나가랜드주의 기획조정부장관과 산림부장관, 농촌진흥정무차관, 농업차관, 의장 등 9명이 함께 했다.

특히 이들은 자국내 청년농업인 육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 대표 농업군인 해남에서 선진농업과 함께 축산업 등을 배우길 희망했다.

군은 이번 상호협력관계 체결을 계기로 농·특·인적교류에 대한 상호 협

력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도 방문단은 옥천농협 RPC, 버섯재배 농가를 둘러보는 등 해남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토지 금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매가 : 평당 15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 중개 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 사거리)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매,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 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주주: 충청북도 대표이사 010-7570-7525

수기동 [12층 관광호텔] 대293m², 건7588m² 김정기 74억원 최저가 52억원

신안동 [3층 스포츠센터] 대1405m², 건5984m² 김정기 69억원 최저가 72억원

전주 삼정동 [헬스파크] 대113m², 건2367m² 김정기 22억원 최저가 7억4천

동화동 [근린시설] 대536m², 건1583m² 김정기 12억6천 최저가 5억6천

학동 [5층 모텔] 대293m², 건772m² 김정기 59억원 최저가 2억6천

농성동 [창고] 대2562m², 건2153m² 김정기 61억원 최저가 27억원

당정동 [온천] 대9352m², 건10821m² 김정기 156억원 최저가 87억원

경기: 대151,2135m² 2억5천 김정기 19억원 최저가 11억원

충청남도: 대112,2181m² 4억7천 김정기 39억원 최저가 2억7천

충청북도: 대285,2570m² 4억7천 김정기 29억7천 최저가 49억7천

경기: 대228,2570m² 4억7천 김정기 89억원 최저가 55억원

전북: 대227,2100m² 7억5천 김정기 105억원 최저가 65억원

충청북도: 대126,2153m² 3억6천 김정기 44억원 최저가 27억원

충청남도: 대136,2153m² 3억6천 김정기 49억원 최저가 32억원

경기: 대183,2153m² 3억6천 김정기 65억원 최저가 40억원

충청남도: 대183,2153m² 3억6천 김정기 65억원 최저가 40억원

경기: 대17304,21287m² 18억1천 김정기 104억원 최저가 22억원

충청남도: 대1435,21506m² 18억2천 김정기 99억원 최저가 6억7천